

## 소비자 설문 결과 정리

- 응답자: 178 명
- 1. 성비
  - 남(48%) : 여(52%) → 86 명/ 92 명
- 2. 나이
  - (1) 20 대 : 171 명
  - (2) 30 대: 7 명
- 3. 직업
  - (1) 학생: 81 %
  - (2) 직장인: 8%
  - (3) 취준생: 11%
- 4. '낮선 이'와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 있다면 참석하겠는가?
  - **네: 65 %**
  - 아니오: 35%
- 5. 참석 수락 이유는?
  - (1) **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교류 : 45%**
  - (2) **어떤 사람들이 모일지 궁금해서 : 44%**
  - (3) 혼자 식사하기에는 심심해서 : 8%
- 6. '낮선 식사' 시도 의향?
  - **네: 82%**
  - 아니오: 18%
- 7. '낮선 식사' 적정 가격은?
  - (1) **10,000 원 ~ 15,000 원 : 61%**
  - (2) 5,000 원 ~ 9,000 원: 28%
  - (3) 16,000 원 ~ 20,000 원: 9%
  - (4) 21,000 원 ~ 30,000 원: 2%

8. '낮선 식사'에 참석하는 이유는? (주관식)
  - 대체적으로 **모르는 사람과의 만남**이 흥미로울 것 같다는 반응(70%)
  - **공통주제**로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부담을 덜 느낌
  - 음식 고르는 힘들음을 덜어줌
  - **메뉴에 대한 궁금증**
  
9. '낮선 식사' 거부 이유?
  -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함, 불안감
  - 음식 호불호가 강함
  
10. 자유로운 의견 제시
  - **식사 장소의 테마를 다양하게 해달라**
  - **성비균형, 나이대가 다양해야 할 것**
  - **공통의 관심사가 아니라,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도 재미있을 것**
  - 신분이 확실해야 할 것, **최소한의 신상정보**를 공개해달라
  - 메뉴만 공개하고 식당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아이디어가 흥미로움
  - **관심사 이외에도 입맛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라 (ex. 오이 hater)**
  - 진정으로 관심사를 위해 모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. 변질의 우려 있음  
따라서 **분위기메이커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 있음**
  - 지역별로 세분화할 것
  - **모인 사람끼리 가위바위보해서 낮선 사람 한명 데려오기 재미있을 듯**
  - **소개팅 요소 도입해라**
  - 정말 좋은 것 같으니 어떻게든 만들어 주세요
  - 안 먹는 메뉴 걸리면 화 날 꺼 같음
  - 랜덤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
  - 식사를 한 후 **시식평도**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